

문화

# 禪 정신 카툰에 투영 친근감 위해 다양한 작업 시도

## 명상카툰 작가 용정은 씨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한 회사의 홈페이지 디자이너로 일하던 그녀는 어느 커리어처럼 예쁜 옷 사입고 맛있는 음식 사먹는 것을 행복으로 삼았다. 하지만 늘 머릿속에는 불교미술을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 법상 스님이 운영하는 인터넷 신행모임 '뚝딱소리'와 인연을 맺게 되면서 인생에 변화가 왔다. 불법을 만나게 되었고 청년회 활동을 하며 생활 속에서 수행의 묘미를 알아갔다. 또 불교를 쉽게 알릴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자 발원한 그녀는 부다일러스트를 그려나가기 시작했고 세상에 명상 카툰을 알려나가기 시작했다.



명상카툰 작가 용정은 씨는 부다일러스트를 시작으로 명상카툰을 그려왔다.

명상카툰 작가 용정은 씨(43)의 이야기다. 2005년 성우 스님의 저서<산사일기>의 삽화를 시작으로 '현대불교신문' '봉은지' 통도사월간 '보궁' 월간 '맑은소리 맑은나라' 등의 연재는 물론 능행 스님의 저서 <이 순간>, 그리고 본인의 글·그림을 실은 <일상에서의 작은 깨달음> 등을 통해 대중들에게 명상카툰을 알렸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에는 불교언론문화상 특별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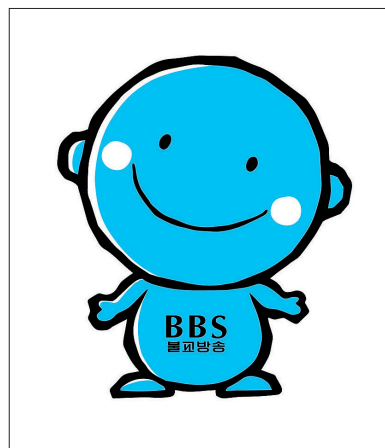
### '뚝딱소리' 통해 불법 만나 부다일러스트 작업 시작 일곱살 딸 읽을 수 있는 불교 동화책 발간 '발원'

"처음에는 왜 불교계에는 불교를 소재로 하는 카툰이 없을까 하는 고민에서 작업을 시작했어요. 당시 광수생각 등으로 카툰이 유행하던 때여서 불교계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내가 먼저 시작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출발했죠. 워낙 불모지에서 혼자 시작하다 보니 미흡한 점도 많았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많이 격려해주셨고 또 도와주셨죠. 특히, 첫 연재를 펼쳤던 현대불교신문은 저의 데뷔 무대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독 '보리', '연꽃부처님 보리', 'I♥BBS 보리', '뚝딱을 안은 보리' 등을 다양한 형태로 표현해 주목을 끌었다. "불교방송 캐릭터도 2012년 불교언론문화상 특별상 수상 당시 사회를 보면서 인연 맺었던 장수연 아나운서가 연락주셔서 가능했던 일이에요. 불교의 오방색 이미지를 각 캐릭터에 대입해 동글동글한 이미지로 대중들에게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작업했습니다."

용 작가는 최근 불교방송의 캐릭터 제작으로 주목을 받았다. 천진동자를 단순화한 형태에 불교기의 색깔(청·황·적·백·주황)을 기본으로 '합장한 보리', '카메라

감독 보리', '연꽃부처님 보리', 'I♥BBS 보리', '뚝딱을 안은 보리' 등을 다양한 형태로 표현해 주목을 끌었다. "불교방송 캐릭터도 2012년 불교언론문화상 특별상 수상 당시 사회를 보면서 인연 맺었던 장수연 아나운서가 연락주셔서 가능했던 일이에요. 불교의 오방색 이미지를 각 캐릭터에 대입해 동글동글한 이미지로 대중들에게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작업했습니다."



BBS 캐릭터 '보리'



일러스트 '연꽃에서 피어난 동자승'



일러스트 '일상에서의 깨달음'

기쁨이 참아줄 수 있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거라.  
마음으로 행할 줄은  
희망이 믿음을 통해서  
발할 수 있단다.

정혜승 기자

반야심경은 심(心)·불(佛)·중생(眾生) 모두 진공묘지(眞空妙智)에서는 본래 평등한 중도실상이고 열반피안(涅槃彼岸)임을 분명히 찬탄하고 있다

**법상유식학으로 풀이한 반야심경**  
송찬우 편역 | 신국판 | 340쪽 | 14,800원

**유식(唯識)을 바탕으로 마음 도리와 불교교리를 통설하다**

'반야심경'은 부처님 49년 장광설법인 일대시교(一大時敎) 가운데 21년 동안 설한 광대하고 심오한 6백부 '대반야경'의 핵심 요지를 빠짐없이 원만구족하게 간직하고 있는 공서이다. 본서에서는 불교의 근본교의인 세간·출세간의 모든 인과차별상(因果差別相)과 성(性)·상(相)이 둘이 아닌 중도실상진공(中道實相眞空)으로서의 열반을 더불어 비추고 있다. 이를 근본자제로 의지해서 일으키는 3관수행문(三觀修行門)과 현실반야(顯說般若)와 밀담반야(密說般若)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상과 교리체계를 낱알이 함축하고 있다. 실로 이는 교리적으로나 사상에 있어서도 위대한 보고서라 할 수 있다. 탄허스님으로부터 교(敎)를, 성수스님으로부터 선(禪)을 배운 동현학림 송찬우(前중앙승가대 교수) 원장의 역작.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hia5@daum.net

# 풍경 속에서 캐내는 무상의 그림자

## 배 타고 남한강 거슬러 올라

요즘 자전거를 타고 서울의 한강을 거쳐 팔당 양평 이천 충주로 달리는 '남한강 중주코스'가 인기다. 조선의 선비들은 배를 타고 한강을 거슬러 여가를 거쳐 충주까지 가는 코스를 좋아했다. 그런 코스를 유망하는 것은 아주 큰 호사였을 것이다.

김장협(金昌協 1651~1708)의 '벽사(壁寺)'라는 시는 서울에서 배를 타고 인륜사 앞까지 올라가 절 풍경 속에서 나옹스님과 목은의 자취를 그리고 박은(朴隱)의 시를 찬탄하는 내용으로 엮어진 20행의 칠언고시다. 제목 '벽사'는 신록사의 다른 이름인데, 벽돌로 쌓은 탑이 있기 때문에 지방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 것이다. 시의 후반 10행을 본다.

## 임연태 시인 山寺에 갖는 선비의 詩心

### ㉞ 여주 신록사 ㉟



신록사 동쪽 암벽 위의 강월헌 앞의 삼층탑은 나옹스님의 화장터임을 말해준다.

사문노회기소술(寺門老檜氣蕭瑟) 동대쌍탑고졸울(東臺雙塔高峯廻) 나옹비판목옹필(懶翁碑版牧翁筆) 후내유취시강절(後來遊翠更絕) 청풍은행자고금(淸楓銀杏自古今) 괴조주명도어출(怪鳥畫鳴跳魚出) 향내일흥여목전(向來逸興如目前) 부인백년심처연(俯仰百年心悽然) 부수회검문호소(不須灰劫問胡僧) 차향단구방산신(且向丹丘訪神仙)

절문 앞의 노송은 쓸쓸한 느낌이요 동쪽 대위 쌍탑은 드높이 솟았구나. 나옹 비석 새긴 글은 목옹의 솜씨이고 후대에 쓴 유취 시 또한 절정이라. 청풍이며 은행나무 예나 지금 그대로이며 인연은 행자고 금괴조 물고기 뛰어노네. 이전 사람 느낀 흥취 지금과 마찬가지로. 인생 백년 돌아볼 제 마음 절로 처량하네. 영원한 세월 이치 승에게 묻기보다 우선 단구 향해 가서 신선을 찾아볼까.

김장협은 시의 말미에 '청풍(淸楓), 은행(銀杏), 괴조(怪鳥), 도어(跳魚)는 모두 읍취현의 시에 있는 말이다'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는 신록사의 풍경 속에서 옛 자취와 시를 떠올리지만, 현실에서 자신이 느끼는 무상감도 크게 드러난다. 그래서 '스승에게 영원한 세월 이치'를 묻는 '단구를 향해 가서 신선을 찾아볼까'라는 독백으로 시를 마무리 했다. 불교가 말하는 적멸의 경지 보다는 그윽한 풍경 속 신선이 되는 길을 선택한다는 뜻이다.

신록동대취백삼(神勳東臺翠柏森) 예성귀도체지림(靈城歸蹄棹潯林) 나옹탑졸풍령어(懶翁塔峯風鈴語) 목로비황석발침(牧老碑荒石髮侵) 적석청운부일색(赤石晴雲浮日色) 여강원수입춘음(驪江遠樹入春陰) 방인막문지회의(傍人莫問運迴意)

무한연파협차심(無限煙波劫差心) 불시애운연(不是愛雲煙)

신록사 동대에 푸르른 잣나무 숲 예성으로 갈 배가 이 숲에 체류했네. 나옹의 부도탑은 풍경이 말해주고 목로가 쓴 비석들만 바위 옷이 끼어있다. 적석의 개인 구름 날빛이 환하건만 여강 멀리 있는 나무 봄을 맞아 그윽하네. 왜 더디 가느냐고 사람들이 묻지 말게 끝도 없는 연파가 이 마음에 들어서야.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의 시다. '밤에 신록사 앞에도 배를 대고 동대에 오르다(夜泊神勳寺登東臺)'라는 제목인데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제3권에 실려 있다. 시의 내용으로 볼 때 정약용은 배를 타고 남한강을 거슬러 예성(忠州)의 옛 이름으로 가다가 신록사 앞에 머문 것이다. 머물고 보니 절에는 나옹 스님의 부도와 목은 이색(牧老)이 지은 비문을 새긴 비가 있어 회상에 잠기는 것이다.

밤은 길, 별 수 있다던가? 정약용은 그 회상을 음미할 뿐, 갈 길을 재촉하지 않는다. 아득한 역사 속의 사람이 남긴 흔적은 지금 강위에 아슬거리는 연파와 같으니 배를 재촉해 갈 마음조차 누그러지고 마는 것이다.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제3권에는 신록사를 읊은 오언율시도 한 편 있다.

독야동대탑(獨夜東臺塔) 오사립영연(烏紗立迥然) 송허풍석석(松虛風漸漸) 강정월연연(江靜月娟娟) 말로무장책(末路無長策) 부생이만년(浮生已晚年) 편주유월박(扁舟有歎泊)

밤에 홀로 동대 탑에 올라 오사모 쓰고 멀리 보며 섰노라니 무심한 소나무에 속삭이듯 바람 불고 강이 고요하여 달빛 유난히 밝네. 남은 길 두서너개 수 있다던가 뜬 인생 이미 늘그막인 것을. 조각배를 여가다 댈 것이 구름 연기 좋아서가 아니라네.

이 시의 제목은 '밤에 신록사 앞에도 배를 대고 동대에 오르다(夜泊神勳寺登東臺)'인데 앞의 시와는 달리 인생에 대한 무상감이 흐른다. 정약용의 사상과 학문이 뿌리 대고 있는 성호(星湖) 이익(李滉 1681~1763)의 '신록사'라는 시도 신록사 풍경 속에 녹아 있는 무상의 그림자를 들춰내는 맛이 있다. <성호전집(星湖全集)> 제1권에 실려 있는 시를 본다.

신록사전강수류(神勳寺前江水流) 신록사종고객류(神勳寺中孤客留) 등영당심경미이(燈影當心耿未已) 경성교몽청이유(磬聲攪夢淸而幽) 산중우치계화절(山中又值桂花節) 령의행심풍엽추(嶺外行尋楓葉秋) 시상동대망야색(試上東臺望夜色) 만공호월운유유(漫空皓月雲悠悠)

신록사 앞에는 강물이 흐르고 신록사 안에는 외로운 길손 머문다. 등잔 그림자 마음에 닿아 잠 못 이루고 경쇠 소리 맑고도 그윽이 꿈 흔드네. 산중에서 또 개화 피는 철을 만났고 영외에서 장차 단풍 물든 가을 찾으니 동대에 올라가서 밤 경색(景色)을 보니 달빛은 허공에 가득하고 구름은 유유해라.

삼매(三昧)의 채로 걸러진, 뼈를 깎는 수행의 결정체 오도송·전법계·열반송·선문답 통해 참마음 깨닫기

**재불조사의 선시, 깨달음의 노래 돌계집이 애를 낳는구나**  
이계목 지음 | 신국판 | 무선 | 흑백 | 636쪽 | 28,000원

제1부 과거칠불과 선종 33조사의 전법계, 제2부 고승·대덕의 오도송과 수행송, 열반송을 모아 번역하고 해설했다. 제3부는 저자의 견도송(見道頌)을 비롯한 자작(自作) 선시와 선문답들로서 40여년간 참선하면서 그때그때 느끼고 깨달은 바를 노래한 책이다. 해인사 강주를 역임, 수행자들에게 선(禪)과 유식(唯識)을 지도해온 화정 이계목 노거사의 역작(力作).

**지상 불국토의 발원이 담긴 앙코르 와트 건설한 앙코르 제국의 불자 대왕, 자야바르만 7세**

**자야바르만 7세, 앙코르 제국의 대왕 소설 앙코르 와트**  
이형중 지음 | 신국판 | 부분 컬러 | 352쪽 | 15,000원

주캄보디아 대사관 총영사를 역임한 이형중 외교관이 지은 이 책은 자야바르만 7세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형식으로 앙코르 제국의 역사와 유적을 흥미진진하게 소개한 역사·전기소설. 부록에 첨부한 앙코르 왕들의 연대기와 유적 일람표, 앙코르 제국의 영역지도, 시엠립 관광 지도와 함께 캄보디아의 유적과 캄보디아인들의 풍속과 삶을 촬영한 사진들이 소설을 읽는 재미와 함께 역사적인 안목으로 앙코르 와트를 살펴볼게 한다.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hia5@daum.net